

필자가 처음 읽은 칼 세이건의 글은 미국 유학시절 《퍼레이드》란 일요 판 신문에 끼어온 한 잡지에 실린 에세이였다. 그의 전공인 천문학이 아니라 시사문제에 관한 글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학자들이 자기 전공 외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도라 여기던 때라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글을 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의 글을 읽어가면서, 일견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명쾌한 논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 쉽게 설명하는 점, 그리고 문학적이라 할 만큼 유려한 문체를 사용하는 그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것이 계기가 돼 그 뒤로 그의 저작들을 관심 있게 섭렵하게 됐다. 천문학은 물론 다방면에 걸친 그의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우주와 지구, 인류를 보는 자애로운 시각에 점점 매료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우주와 환경, 우리의 미래에 대한 폭넓은 식견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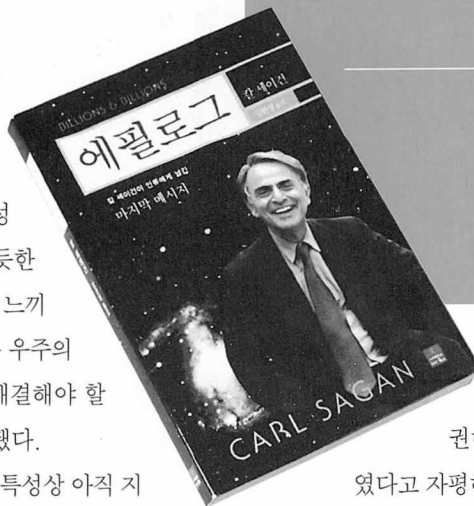
이번에 출간된 칼 세이건의 유고 《에필로그》(김한영, 사이언스북스)는 그가 지구에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제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전편에 흐르는, 우주를 관조하는 듯한 여유로움과 유머는 책을 덮고 난 후에도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4부로 나뉘어 정리된 그의 메시지들은 우주의 아름다움과 위태로운 지구의 환경문제, 인류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 그리고 투병생활중의 생각들로 구성됐다.

의심과 철저한 검증이 제일의 덕목인 과학계의 특성상 아직 지구 이외의 천체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행성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일생을 통해 외계생명체의 존재를 찾는 노력과 인류를 그들에게 알리려는 시도들을 주도해왔다. 우리 인류가 이 방대한 우주에서 외톨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품었던 그였기에 인간들 사이의 제한적인 일상에 얽매어 시야가 좁아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인류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유지했는지도 모른다. “이웃한 수천 개의 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점”에 있는 인류가 공존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 않은가?

### 과학기술의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 뒤따라야

현대문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그의 견해는 타인에 대한 진지한 배려가 과학과 무관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나 자신에게 인류에 대한 사명감마저 느끼게 한다. 그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술문명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안전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로 만들려는 본능적 지식이라고 비판한다. 나아가 과학 기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걸맞는 책임도 따른다고 지적한다. 이런 그의 지적은 과학자의 현재 행동에 미래의 결과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조심성을 요구한다.

이 책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과학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인류애를 담은 마지막 저서다. 그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우주와 환경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술문명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안전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로 만들려는 본능적 지식이라고 비판한다.



책갈피 산책

## 《에필로그》

우주와 인간을 사랑한 한 천문학자의 마지막 메시지

칼 세이건 지음 | 김한영 옮김  
사이언스북스/A5신/350면/12,000원

장민환 | 경희대 우주과학과 교수

골수이형성증이라는 병과 싸우며 여러 번 죽음을 대면했지만, 그 경험을 남에게 권하고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인격 형성의 기회였다고 자평하는 그였지만, 삶의 영속성에 대한 소망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물론 헛된 바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과 함께, 사후세계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했던 그는 “생이 제공하는 짧지만 강렬한 기회”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죽음과 대면하고자 했다.

그는 생전에 증거가 없을 때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종교에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며 인류에게 과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이 책에서도 과학과 종교라는 해묵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글에서 나타난다. 그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며 “자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이성의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이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바치는 것”에 만족했다.

이 책을 통해 이 세상이 크고 깊은 사랑과 선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거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잔잔한 감동으로 남는다. 그가 부정했던 내세가 존재해, 지금쯤 우주 먼 곳의 한 행성에 외계생명체로 환생한 그가 지구인을 찾기 위한 작업을 주도하며 우주의 평화를 역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은 그를 잃은 아쉬움이 너무 큰 탓일까? ■

장민환 교수는 경희대 물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주립대에서 천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 우주과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국제천문연맹, 미국 천문학회, 한국 천문학회, 한국 우주과학회 정회원이며, 1997년 국내 학자로는 최초로 시쌍성인 HV CAM(경희성)을 발견했다.